

투데이

“친환경 인증 남발 이대로 안돼”

전남 민간 인증기관 17곳 난립…곳곳서 부실

지난해 1900농가 취소…朴지사 “정비 필요”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1번지’인 전남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간 인증기관들의 난립으로 인한 인증 결疤에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았다가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해 전남 지역 9만7000여 친환경 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인증 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00여 농가가 인증 이후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계속하지 않다가 적발돼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친환경 농업을 전남의 대표 브랜드

로 육성하는 정책에 따라 친환경 인증 면적이 증가하면서 농가 부주의 등으로 행정처분 건수도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이지만 철저한 검증 없이 민간 인증 기관들이 친환경 인증을 남발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전국의 절반(50.6%)에 이르는 탓에 농관원 외에 전국(71개소)에서 가장 많은 17개나 되는 민간 인증 기관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 인증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는 데다, 일부 기관의 경우 충분한 심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인증 여건

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2008년 전남의 한 민간 인증 기관이 인증 비용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직 농관원 출신을 영입한 뒤 부실인증 무더기 발급과 분석·출장비용 과다 청구 등으로 검찰에 적발됐던 전례가 있었던 점도 부작용 우려를 높이는데 한몫하고 있다.

박준영 지사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도내 일부 친환경농산물 민간 인증기관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상반기 공약사항 보고회’에서

“친환경농업 인증기관의 신뢰에 위기가 오면 친환경농업 전체에 위기가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남지역 농가들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위해 전남지역 민간 인증기관에 의뢰하고 있다는데 왜 그러겠느냐?”며 “전남지역 인증기관들이 쉽게 해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도내 민간인증기관들의 인증 남발을 우려했다.

박 지사는 “전남에만 민간인증기관이 17곳이니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 농가들이 쉽게 인증을 내주는 곳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3~4개 군을 1개 인증기관이 맡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친환경농업 민간 인증기관에는 인증건수에 따라 인증 소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농가부담 21억원과 지방비 32억여원 등 54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증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면서 “농관원과 해결점을 찾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27일 광주시청 종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창립총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아시아문화포럼 창립…콘텐츠산업 등 집중 육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조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아시아문화포럼)’이 27일 오후 광주 시청 종회의실에서 창립됐다.

아시아문화포럼은 오는 2023년까지 국비 2조8000억원 등 모두 5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과 관련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자문·의견수렴 ▲지속 가능한 문화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5대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다양한 문화 주체 및 세계와의 교류 네트워

크 형성 등에 나서게 된다.

우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까지 운영될 이 포럼은 고은 시인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 대표와 교수, 전문가, 공무원 등 87명으로 구성됐다.

포럼은 운영위원회와 함께 문화전당부과위원회, 문화도시환경조성부과위원회, 예술진흥·문화산업·관광부과위원회, 문화교류·인력양성부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뉘며 2회 정기회의와 수시 회의를 갖고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창립 인사

말에서 “옛 도청별관 보존문제 등으로 오랜 세월을 허비한 것은 무엇보다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부위원장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역임한 전득열 전남대 교수를 위촉했으며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선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 광역경제 선도산업 포럼

내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

광주·전남·전북의 호남권 지역 기업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거둔 성과를 한데 모은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성과전시회 및 포럼’이 29일부터 이틀간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열린다.

선도산업의 2차년도 사업 종료에 맞춰 열리는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접목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3차년도 최종 성과목표 달성을 활용하고자 6개 권역별로 개최되는 성과보고회의 6번째 행사다.

보고회에서는 성과발표회, 성과사업 발표 및 패널토의, 우수상품 성과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난 2년간 선도산업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고 3차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뉴스 브리핑

광주시 총인시설 의혹 일축…공사계약 체결

광주시가 최근 ‘제1·2하수처리장 총인 저감시설 입찰’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일축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송귀근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총인 저감시설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해 조만간 조달청에 총인

저감시설 공사계약 체결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설계중인 설계적격업체 대림산업 컨소시엄은 총인 저감시설의 총사업비 982억원 가운데 감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 871억3500만원으로 내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석유제품 판매거부·사재기 집중 단속

정부가 석유제품 대리점과 주유소의 판매 거부나 사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정유사들이 생산·판매의무를 어길 경우 처벌 내용을 내세워 기름값을 얕힐 종료에 따른 가격 연착륙

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장관 명의의 공고에서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면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즉각 투입하기로 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41km로 확대 추진

변경안 내달 승인 마무리

연말까지 시민의견 수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오는 7월 중 국토해양부 승인 절차를 마칠 전망이다. 광주시는 변경안이 절차를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연말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착공시기와 관련 시민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27일 오전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검토의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운영에 따른 적정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우선순위를 단계별 추진계

등 8개의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 국토부 국가교통실무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경안은 애초 백운광장~광주 시청~풍암지구~백운지구 등 22.1km였던 2호선을 시청~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 등을 연결하는 총 길이 41.7km의 확대순환형 노선으로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로 면 7월 20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검토의견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운영에 따른 적정재원 조달 방안과 투자우선순위를 단계별 추진계

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승인이 이뤄지는대로 추진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건설방식과 착공시기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1조7000억원 원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지상고가 경전철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소음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노면전철이나 모노레일, 연전철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라고 27일 밝혔다.

토요 스포츠 강사는 올해 2학기에 300명을 주5일 수업제 시범운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 2000명, 2013년 5000명까지 배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 2학기 강사의 경우 사·도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7월)하고 학교장이 선발(8월)한 뒤 9~12월에 배치해 운영한다. /연합뉴스

초·중·고 5일 수업제…토요일은 ‘스포츠데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주로 ‘스포츠 데이’(스포츠 활동의 날)로 운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

광부는 이에 대비해 학교 내 운동 강습, ‘스포츠 클럽·리그’ 전개 등 다양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스포츠 강사 5000명을 배치할 계획이

한자교육〈천자문과 한자성경으로 배우는 한자교육〉혁명

〈아동 : 00명, 성인 00명을 3개월, 1년 과정 모델교실에 특별 초대함〉

한글서체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서체로 알게 됩니다!

한글은 3장 정도만 자주롭게 읽는 분이면 읽습니다. 한자성경은 한자전용이 아니므로 기본 잘 몇 장만 읽기 되면 한자를 한글서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뜻은 한글서체 동시에 알게 되고 한자성경 사용교회에 1년 정도 출석만으로 4000여 글을 한글서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

천자문은 한글서체로 단기간에 한자를 한글서체로 알게 됩니다!

천자문은 고대 중국 역사로 삼황에서 삼국시대까지 40여명의 인물과 나라, 지명, 악어(준말)와 옛날 읽기교재로 배우게 되면 천자문을 한글서체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글서체로 천자문을 누구든지 예전처럼 쉽게 배우고 한자를 한글서체로 아는 자를 길입니다.

• 시범강좌 및 교육설명회

7월3일(주말) 오전11시 예배와 오후 2시 7월7일, 목요일 오전10시 예쁜 교회에 7월3일에(오전 11시, 오후2시 교육설명회) 출석하시는 분들께 개한자성경을 드립니다. (준비관계로 사전접수요망)

• 찾아오는길 : 광주 수완지구 성덕중학교 건너편 피리비개로 뒤에 에덴의 교회 ☎ 010-3911-3907 062 433 3907

강사 : 전제웅원장

(한자교육연수원장, 10년간 한자교육방법연구 한자는 한글보다 쉽다 저자)

성경주문(가족 30,000원, 비닐20,000원, 찬송가합본 40,000원 택배비포함) 서서공회발행

〈교육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가능합니다.〉

• 교육상담 ☎ 010-2218-1255

한자교육(전도학교)연수원<시 군 구 지부 모집 중임>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정덕동 1086번지성덕중학교 건너편

☎ 062-433-3907

• 한자교육연수원 cafe.daum.net/jeodanglove

• 메일 : juhanja@hanmail.net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균육

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선후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별기는 되나 자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별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½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별기가 잘됩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획서비스 · 개인부정부당행위 척결